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윤정*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6. 17(토) ~ 7. 15(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정확히 말하면 UP마닐라 대학과 연계된 어학원으로 파견되는 겁니다. 유 피마닐라는 4주 일정 중 하루정도 방문하구요. 전반적인 시설은 괜찮습니다. 기숙사는 물론 방마다 침구, 책상, 수납공간, 에어컨 등의 시설 차이가 좀 있지만 4주간 지내는데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2틀에 한번씩 청소도 해주구요.</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전반적으로 만족했습니다. 강사들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애정이 넘쳐서 매우 친구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모든 강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구요. 수업준비를 대부분 잘 해오시지만 선생님들이 야간에 인터넷 강의까지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피곤함이 눈에 보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피스에서는 매 수업마다 학생들에 대한 리포트를 쓰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으로 느껴졌고 하루하루 리포트를 한다면 하루만에 학생의 역량이 향상될리는 없습니다. 한 주에 한번 씩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강사분들도 쉴 수 있어, 수업시간에 더욱 열정이 넘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mmc라고 불리는 멀티미디어수업은 굳이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수업시간만큼은 뮤직비디오를 보거나 이전 기수들이 만든 cf 혹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만들고 마지막주에 film festival 이라고 해서 경연대회를 합니다. 재밌는 추억을 만들게 하고자 이 수업을 개설한 것 같은데 아무리 단기여서 큰 실력 향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어도 다른 과목 공부시간에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그런 시간으로 대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액티비티들은 물론 현지 날씨라던지 그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여서 사전 공지를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대략 이전 기수들의 후기들을 보면서 요트 타는 것, 리조트에서 수영하는 것 정도와 고아원 방문, 유피마닐라대학 방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피마닐라대학을 방문하는 것은 좋은데 교통상황 등의 문제로 매우 이른 시간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 학생들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가서 파트너와 강의실 구경이라던지 그런 시간들로 구성하는게 더 나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좋지않은 컨디션으로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룹 게임 같은 것은 집중도 되지 않을뿐더러 유쾌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고아원 방문은 무엇을 위해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봉사라고 하기에는 봉사하는 것은 딱히 없고 너무 형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다들 어학공부하러가서 원하지 않는 봉사를 하는 것은 좋지 않았습니 다. 대부분 전반적으로 공통 액티비티에 대한 비용을 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기어학연수가 목적인데 원하지도 않는 리조트에 가서 수영을 해야하고 고아원 방문 시 기부를 위해 돈도 걷었습니다. 이런 것이 충족되어야 학점 이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활동은 이수요건에서 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본인 부담금이라고는 생활비정도 외에는 안드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선택권도 없이 공통 액티비티는 무조건 해야한다며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지불하면서 했던 점들이 정말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동계는 좀 덜하지만 하계의 경우엔 필리핀에서는 우기여가지고 비가 올때는 꽤 많이 옵니다. 그 외에는 한국 날씨랑 하계 때는 비슷하기 때문에 지내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수빅이라는 지역 자체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한 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요금을 더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그 점은 항상 조심해야하고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무단 횡단을 하지만 꼭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를 꼭 지켜서 건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운이 나쁘면 경찰에게 꽤 비싼 금액으로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O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전반적으로 괜찮았으나 제가 지냈던 방같은 경우에는 스탠드가 없어서 요청을 했고 그렇지만 콘센트가 너무 짧아서 단 한번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에어컨도 나중에는 좀 시원해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여 매일 점호가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몸이 안좋거나 하여 정말 일찍자고 싶은 날이 있는데 방에 학생리더나 오피스 담당자 분이 들어오게 되면 깨게 됩니다. 저같이 잠에 쉽게 못드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런 점들이 좀 힘들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O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한식이라하여 기대를 좀 했으나 괜찮은 음식은 괜찮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맛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김치는 대부분이 너무 시었고 메뉴 같은 경우도 월요일에 나왔던게 목요일에 나오기도 하고 대부분 똑같은 메뉴가 한 주에 요일이 다르게 여러번 나왔습니다. 불편한 점은 식단표가 없어서 잠, 휴식을 포기하고 밥을 먹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어서 거의 먹지 못하고 그냥 방으로 돌아간 적도 많았습니다. 식단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FB라고 불리는 벤같은 것 혹은 콜택시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FB가 가격이 훨씬 싸서 주로 이용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혹은 시간대가 애매할 때는 30분도 넘게 기다려서 탄 적도 있어서 시내를 나갈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환전하면 큰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교통비는 매우 작은 단위여서 낼 때 너무 불편합니다.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거든요.</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공항세	약 13,200원 (600페소)	
Anvaya cove(리조트)	약 6600원 (300페소)	
고아원 기부 물품비용	약 6600원 (300페소)	
병원비(진료비,검사비,처방약)	약 40,000원 (약2000페소)	비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병원비는 물갈이로 인한 병원에서의 진료 및 처방약 비용입니다.
생활비(기념품, 외식, 관광 등)	약 250,000원	
합계	약 330,00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다른 공동 액티비티는 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해하면 할 수 있지만 공항세 같은 고정 비용같은 경우는 사전에 공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준비 물품에 관련하여 자료도 받았지만 그저 대략적인 30~40만원 정도만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필리핀이 물가가 싸긴하지만 충분히 환전을 해올걸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자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에 드라이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드라이기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며 휴지가 써있었는데 이게 화장실 휴지를 각자 준비해야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준비 물품을 상세히 공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다보니 취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식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방 내에서는 터지지 않고 복도로 나가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매우 불편합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에 해당하는 괜찮은 유심 상품이 있다면 미리 구매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가서 쓸 경우에는 유심을 사고 데이터카드를 충전해서 쓰는 형식입니다. 가서 100페소를 지불하여 1주일정도 쓸 수있는 것을 4주치 사는 것이 제일 괜찮습니다. 첫날에 보통 새벽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일정이 시작되는데 그날부터 레벨테스트 보고 보통 수빅투어 할 때 유심을 삽니다. 강사분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현지 데이터카드나 유심 상품에 대해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아실테니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은 안 갖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근 몸 아픈 사람이 많았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해야하구요.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 보다는 약간은 부족했던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얻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달이라는 시간으로는 영어 실력이 향상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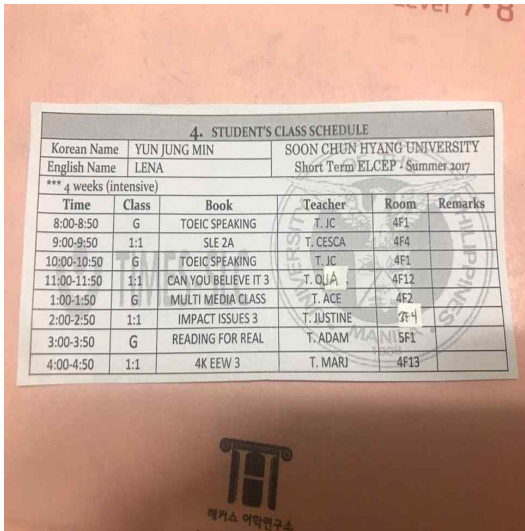

렁기에 다른 사람들 놀 때 정말 열심히 복습하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영어 말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얻고 싶고 그런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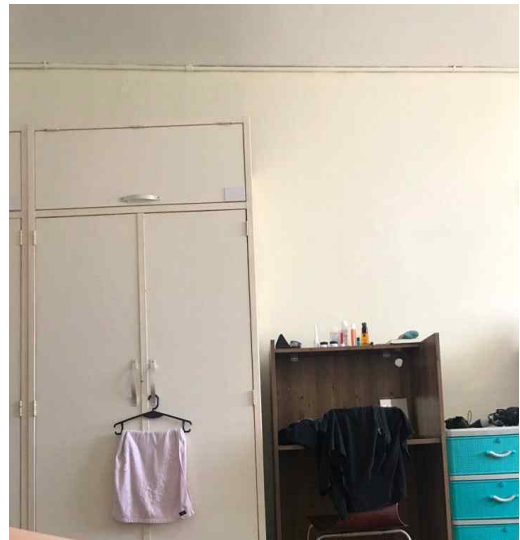
내용을 쓰다보니 출국 전 준비사항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같구요. 다시 한번 더 말하자면 사전 공지가 좀 더 잘 이루어지고 건강관리에 좀 더 유의했다면 더 즐거웠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서 물갈이와 감기로 인하여 좀 힘들었습니다. 음식도 저랑 많이 안맞았구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이사님 말씀으로는 방에 와이파이기가 터지면 다들 핸드폰 하고 그러느라 그다음날 수업시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방에 와이파이를 안터지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쓸려면 복도에 나가서 쓸 수가 있고 혹은 데이터카드를 사면 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기에 다들 그렇게 사용했는데요. 공부하러 간 학생들 돈을 오히려 더 쓰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에 와이파이기가 터진다고 해도 그다지 핸드폰만 하루종일 붙잡을 정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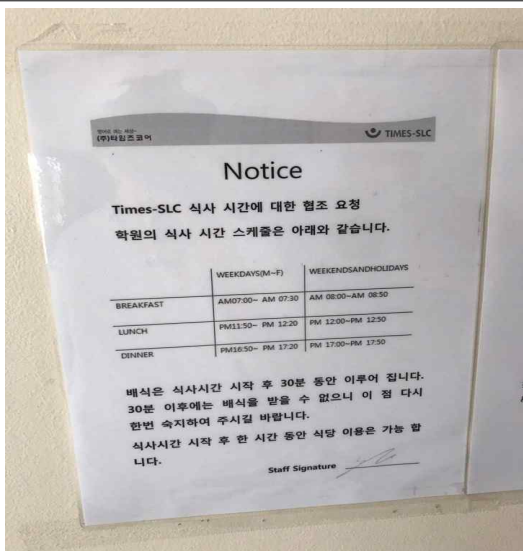
	
<p>레벨 테스트 완료 후에 이렇게 시간표가 나옵니다. 4시간의 그룹수업, 4시간의 1:1 수업</p>	<p>식당에서 먹은 급식들입니다.</p>



보이는 곳이 카페테리아(식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식사도 하고 레벨테스트 그리고 특별 강의 같은 것을 듣습니다.



방 내부를 잘 찍은게 없지만 그나마 있는 사진입니다. 저희 방은 옷장과 책상 수납장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식사시간은 보통 이렇게 공지되어 있는데로 이루어졌습니다. 빨래도 다 해주는데 이도 주말에는 1시간 늦어진 시간에 빨래를 내놓거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1:1 수업 강의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